



2021년 2월 21일(제1023호) 시순 제1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영적인 전쟁 중”

제가 사목하는 강화도에는 북한이 너무나 가깝게 보이는 해안 소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추운 곳에서 외롭고 힘들게 근무하며 고생하는 해병들이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병들이 열심히 근무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그것은 과거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오늘 사순 시기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전쟁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냐고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한창인데도 전쟁 중인지도 모르고, 내가 악마에게 유혹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죄와 게으름과 미움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스스로 휴전 중이거나 영적 전쟁이 끝난 것으로 착각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하루하루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악마의 유혹을 받으신 것을 통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악마의 유혹은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인 배고픔과 명예 그리고 부와 권력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는 우리 자신이 가장 굶주려 있고,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나 슬기롭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악마를 섬겨서라도 지금 내가 가진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꼭 붙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여러 번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칩니다. 악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약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종이 한 장과 같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은 어린아이의 손으로도 쉽게 구길 수도,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작은 유혹에도 금방 구겨지고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을 성경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찢거나 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바로 내가 종이 한 장과 같이 누구나 쉽게 찢고 구길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내가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꼭 붙어있을 때,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순 시기의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시면서, **나 스스로에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시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방법,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은 **매일 복음 읽기, 아침·저녁 기도하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9시 기도하기, 늦은 밤에 스마트폰 쳐다보지 않기** 등 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깨어 한 가지 작은 결심을 이 미사 중에 봉헌하시고 실천하시어 주님 품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순 시기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진승범(베드로) 신부
정병세리필(해병2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창세 9,8-15
- 회 답 송** ◎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 제 2 독 시** 1베드 3,18-22
- 복음 본궤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복 음** 마르 1,12-15
- 영 성 제 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의 시한

네 번째 시한

스승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험이 없지 않고, 또한 주위 상황과 저의 무능과 허약함이 이 위험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은혜로 위험 중에 무사할 줄 바라고 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물건은 벌써 다 준비되었고, 옷과 신발은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묶어 두었습니다. 조선에 들어갈 때에는 더 쉽게 잠입하고 악마의 심부름꾼들 편에서 우리를 덜 주목하도록 거지로 위장할 작정입니다.

이곳은 모든 분들이 다 안녕하시고 저도 허약하나마 그럭저럭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만 편지를 끝내면서 스승님께 의지하는 이 작은 아들을 하느님과 성모님 대전에 항상 기억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조선에 들어간 후에 저에게 닥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스승님께 편지를 올리겠습니다.

지극히 좋으시고 공경하올 스승님 내내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부당한 아들 조선인 김 안드레아가 인사드립니다.

추신 :

이 편지를 개봉하고 새 소식을 추가합니다.

저는 매일 매스트르 신부님한테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며, 토마스는 만주에서 페레올 주교님 곁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프랑스어 공부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매스트르 신부님이 유럽에서 온 서한을 받으시고 저에게 프랑스어 공부를 포기하도록 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어 회화는 저에게 분명히 유익하지 않습니다만, 에리곤호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었기에 약간은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프랑스어 독서는 저에게 무익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애써서 배운 프랑스어 독서를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만일 제가 불라 사전(佛羅辭典)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지금쯤에는 프랑스어 책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마카오에서 떠나올 때 리브와 신부님이 저에게 프랑스어 책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몇 권은 매스트르 신부님의 분부로 버렸습니다.

토마스는 프랑스어 책들을 읽을 허락을 받았는데, 그 프랑스어 책들은 그가 마카오에서 떠나올 때 리브와 대표 신부님이 유럽에서 온 서한을 받은 후 불라 사전과 나불 사전(羅佛辭典)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목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살려면



잘라라.
잘라야 산다.

멈춰라.
멈춰야 산다.

꿈어라.
꿈어야 산다.

살려면
이쯤에서 멈추고
다짐해야 한다.

상화이야기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



작자 미상, 12세기경 제작
베니스 산 마르코 성당 벽 모자이크화

12세기에 제작된 이 모자이크화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악마의 이야기를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마태오 복음 4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림 왼편부터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하라는 유혹, 두 번째는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밑으로 몸을 던져보라는 유혹, 그리고 세 번째는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 엎드려 나(악마)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이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천사들의 모습이 보이며, 그 발치에 도망가는 듯이 보이는 악마가 그려져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야기의 중요한 점만 뽑아 간략하게 묘사해 놓았는데도, 그 내용 전달이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유혹이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굴복하는 유혹이며, 인간의 몸을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이상, 우리는 이 유혹을 거부할 수도, 또 유혹에 응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한 우리의 몫이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시순 제1주일: 회당대 유충현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2월 21일(주일) 11:00
- 국장회의
 때·곳: 2월 23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